

(붙임 1)

일정표

날짜	시 간	내 용
11.1. (금)	09:00-09:10	▪ 진도군-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업무약정(MOU) 체결
	09:10-09:40	▪ 개 회 식 ◦ 환영사 : 이동진 (진도군수) ◦ 개회사 : 이삼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 축 사 : 장영태 (진도군의회 의장)
	09:40-10:30	▪ 기조발제 1. 아시아의 공유유산으로서의 샤먼유산의 보호와 국제적 협력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2. 샤먼유산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관과 그 문화적 가치 김인희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10:30-13:00	▪ 제 1부. 동북아시아의 샤먼유산 ◦ 좌 장 : 함한희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 발표 1 : 몽골 샤먼유산의 특성과 현황 투스자갈 잠발슈렌 (몽골무속협회 연구원) ◦ 발표 2 : 한국 샤먼유산의 특성과 현황 김현선 (경기대학교 국문과 교수) ◦ 발표 3 : 일본 샤먼유산의 특성과 현황 카와카미 신지 (일본 기후시립여자단기대학 국제문화학과 교수) ◦ 토 론 나경수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경엽 (목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차옥덕 (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 원장) 박원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팀장)
	13:00-14:00	오 찬
	14:00-16:30	▪ 제 2부. 동남아시아의 샤먼유산 ◦ 좌 장 :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사업본부장) ◦ 발표 4 : 필리핀의 토착의례 연행자들 헤수스 페랄타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자문관) ◦ 발표 5 : 베트남의 샤먼유산 - 렌동 규명을 위해 공동체와 함께 일하기 레티민리 (베트남종교의례보존연구소 부소장) ◦ 발표 6 : 미얀마 샤먼유산 보호를 위한 전략 야야 킨 (양곤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 토 론 황루시 (관동대학교 미디어문학과 교수) 이용식(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 허용호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서인화 (국립부산국악원 원장)

	16:30-17:00	휴 식
	17:00-19:00	아시아 샤먼유산 시범공연 및 해설 (Lecture Demonstration) 진행 : 황루시 (관동대학교 미디어문학과 교수) 공연팀 : 한국, 몽골, 미얀마, 일본, 베트남, 인도
	19:30-21:00	환영 만찬
11.2. (토)	09:00-09:30	▪ 특별발표 : 영상을 통해 본 라오스와 태국의 무속 신앙 및 의례 피터 리버모어 (프리랜서 영상감독, 세븐오리엔츠 대표)
	09:30-12:00	▪ 제 3부. 서남아시아의 샤먼유산 ◦ 좌 장 : 김성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 발표 7 : 인도의 무속적 병고침의 문화적 투쟁 무투쿠마라스와미 (인도 국립민속지원센터 소장) ◦ 발표 8 : 부탄 샤먼유산의 보호 현황 및 과제 처링 초키 (부탄가족문화부 무형유산과 연구원) ◦ 발표 9 : 터키 샤먼유산의 보호 현황 및 전승 과제 오즈쿨 초반오울 (터키 하제테페대학교 국문과 교수) ◦ 토 론 김미숙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 교수) 이용범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김용구 (국립무형유산원 사무관) 허동성(한국예술종합학교 세계민속무용연구소 연구원)
	12:00-13:00	▪ 종합 토론 아시아 샤먼유산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그 보호 방안 (진행 : 이삼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13:00-14:00	오 찬
	14:00-22:00	샤먼유산 기획공연 '인류의 원초적 문화의 표상 : 아시아의 샤먼유산' 진행 : 황경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공연팀 : 몽골, 미얀마,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

시범공연 내용

몽골의 샤먼유산: 갈르 타히흐 요스 (불의 제사)



제의는 몽골 샤머니즘의 주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몽골의 샤먼이 무의식(巫儀式)을 통해 청하는 주요 신격은 천신(天神; Tengri)으로서 서방을 관장하는 백천신과 동방을 관장하는 흑천신으로 구분된다. 몽골의 무의식은 자연에 내재된 신성(神性)을 상징하며, 샤먼은 무의를 통해 도달한 무아경의 상태에서 이러한 신성과 접촉한다. 무복 착용과 무구, 기물 등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샤먼은 큰 북이나 구금(口琴) 반주에 맞춰 주문을 읊송하여 조상신인 옹고드를 청신한다. 주문과 청신 절차는 신들에 대한 초청, 환영, 존송, 위무, 원망(怨望) 등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지닌다. 샤먼이 접신하면 조무(助巫)인 튀세와 신도들은 향과 술, 음료 등의 제물을 바쳐 신령을 반겨 접대한다. 접신이 되면 샤먼의 음성이 변화하며, 고대어나 사투리, 혹은 자신과 다른 성별의 목소리로 말하기도 한다. 이 때 튀세는 샤먼을 통해 현현한 신령의 뜻을 풀어 신도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차는 불을 피우기 위해 지신의 허락을 구하는 평화 기원의식 · 33천에 대한 기원 · 55 백천신

과 44 흑천신에 대한 기원 · 최고천신의 청신의식 · 착화(着火)의식 · 최고천신에 대한 청원의식 · 배화(拜火) 및 공양의식 · 풍요 기원의식 · 청원의식 · 최고천신에 대한 재청원의식 · 재액 소각의식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미얀마의 샤먼유산: 낫 브웨 (아홉 개의 영혼에 대한 제사)



미얀마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신령, 즉 낫(nat)의 존재를 신봉하여 왔다. 그 중 마을/지역의 수호신령 계열인 이워드도신 낫(Ywardawshin Nat), 부계/모계 조상신 계열인 요워르 낫(Yoyar Nat), 그 외 토속적, 대중적 신령 계열인 37 낫이 가장 널리 숭배된다. 낫 브웨는 중요한 행사 시에 낫에게 과일, 술, 담배, 음식 등의 공물을 바치며 복을 기원하는 미얀마의 기층 무속의식으로서 전문적 무당인 낫 꺼도(nat kadaw)에 의해 행해진다. 무당은 신령의 일대기를 묘사하는 무가를 부르면서 춤을 추며 접신상태에 이르기까지 무악(巫樂)은 점차 빨라져 열광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접신한 무당은 신도들에게 공수축원과 점복의 말을 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호신인 궤 미웃 신 낫, 빨레 인 낫, 민 퓨 신 낫, 부모신령인 네까리네 머도 낫, 37 대표 신령 중 일부인 다르닌 버도, 뽀빠 머도, 쉘핀 기, 쉘핀 라이를 연행한다. 크게 보아 석가모니 부처에 대한 존송의식 · 민 퓨 신 · 궤 미웃 신과 그의 누이인 빨레 인, 바고 머도, 부신인 버도과 모신인 뽀빠 머도, 그들의 아들인 쉘핀 기, 쉘핀 라이, 빠칸 우

민 까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일본의 샤먼유산: 미야코지마의 가미우타

오키나와현(沖繩縣)의 미야코지마(宮古島)에서는 다양한 무의(巫儀)가 전승되어 왔다. 대부분의 무의는



‘쓰카산마’라고 일컬어지는 신녀(神女), 즉 무녀에 의해 각 지역의 제당(우타키; 御嶽)에서 행해진다. 무녀는 무악반주 없이 무가 영창을 통해 신도들의 청원을 신에게 전달한다. 무녀는 통상 신에 의해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택된다. 일정한 연령이 된 여성들은 무녀가 될 자격이 부여되며, 무녀 자격이 있는 이들의 이름을 쓴 종이를 쟁반 위에 놓고 흔들며 일정한 회수에 쟁반에서 떨어지는 종이를 확인하여 무녀를 선발한다. 자격 연령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임기는 3년이다. 무녀는 역할에 따라 무의를 관장하는 ‘우훈마(ウフンマ)’, 신가(神歌)를 부르는 ‘가카란마(かからんま)’, 접신(神かか)리는 ‘가카라(カカラ)’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가는 신지킴 상태에서 신도들의 소원을 신에게 직접

전달하는 제의적 수단이다. 신가는 일반 신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축가와 제당에서 신에게 바치는 ‘오요시’로 구분되며, ‘오요시’는 신격과 제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키나와현 미야코시(宮古市) 이라부도(伊良部島)의 사라하마(佐良浜) 지역에 속한 3인의 무녀가 축가와 오요시를 연행한다.

한국의 샤먼유산: 서울새남굿



서울새남굿은 현재의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사령(死靈)굿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로 지정된 무형문화유산이다. 주로 상류층, 부유층에서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으로 천도하기 위해 행해졌던 무의인 서울새남굿은 불교의 정토신앙 관념과 망자에 대한 유교적 예(禮)가 첩입되어 무(巫)·불(佛)·유(儒)의 혼용 양상을 보여준 것은 물론 화려한 궁중복식과 아정한 춤사위, 현란한 무악 등 여러 면에서 고도의 예술적 품격을 특징으로 한다.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행해지는 안당사경맞이에 이어 다음날 아침부터 거행되는 새남굿은 새남부정, 가망칭배, 중디밧산, 사제삼성, 말미, 밖도령, 영실, 안

도령, 상식, 뒷영실, 베가르기, 시왕군, 뒷전의 정치하고 체계적인 제차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당사경맞이 중 무조(巫祖)인 가망신, 즉 죽은 만신의 영혼인 말명을 모시고 불사, 천존, 일월성신, 칠성을 놀리는 불사거리, 최영장군 신령님께 제가덕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상산거리, 새남굿 중 가장 복잡한 제차의 화려한 거리로서 무조인 바리공주님이 망자의 혼백을 극락천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령거리 등 세 제차가 행해진다.

베트남의 샤먼유산: 렌동

렌동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무속의식이다. ‘렌동’은 접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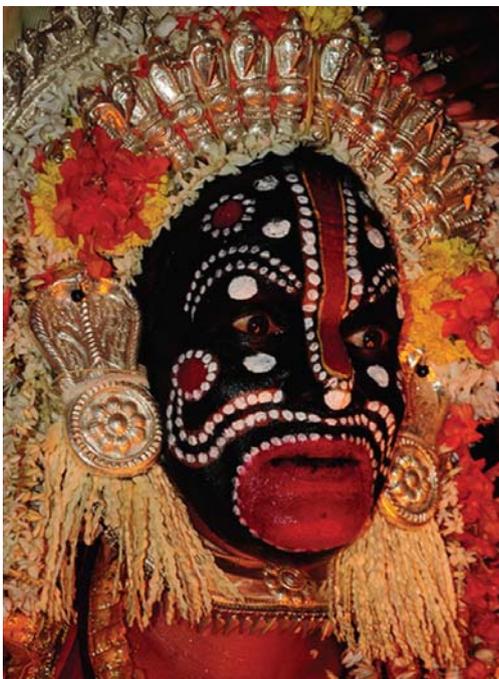


상태를 의미하며, 무의를 주재하는 무당은 ‘허우 봉(haw bong)’이나 ‘허우 동(hou dong)’이라 불린다. 렌동은 베트남 전역에서 진행되는 성모(聖母) 숭배 신앙으로 성모를 중심으로 각 방위에 따라 붉은색은 하늘, 백색은 바다, 청색은 산, 황색은 땅을 각각 상징한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베트남의 무속은 존속되어 왔으며, 특히 매년 3월 3일의 축제 시에는 여러 렌동들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 찾아온 신도들의 긴 행렬이 이어진다. 제물은 보통 거울과 빛, 고추 등인데 거울과 빛은 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화장도구이며,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고추는 자손의 번영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에서 렌동의 제차는 3명의 마우(하늘, 땅, 물), 산신, 운세를 관장하는 람 타오, 침략군을 물리친 여장군신인 밧 냥, 레왕조 당시의 문관인 호

앙 무오이, 마우신들과 왕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어린 여신의 순서로 진행된다.

인도의 샤먼유산: 부타

부타는 인도 남서부 까르나타카 주의 연안지대인 닥쉬나 칸나다, 우두빠 지역과 깨랄라 주의 까사르



고드에서 고대로부터 활발하게 전승되어 온 무속의식이다. ‘부타’는 지역어로 ‘신령’을 의미하며 신격의 위엄한 형상을 재현하는 부타의식은 전염병 퇴치, 치병, 자손, 풍작, 가정과 공동체의 번창, 축역 등의 목적에서 연행되어 왔다. 약 400명 이상의 다양한 부타 신격들이 하층민들에 의해 숭배되며 힌두교 상위계층의 후원을 통해 부타가 연행된다. 각각의 부타는 무당의 청신무가를 통해 전달되는 본풀이 신화를 지닌다. 통상 부타의식은 신당과 조상신을 모신 사당, 공터, 신성한 숲, 군사학교 등에서 거행된다. 무당은 코코넛잎, 빈랑나무 불염포(佛焰苞), 자스민꽃 등으로 제작된 화려하고 정교한 의상을 착용하고 북 장단에 맞추어 격렬한 춤을 추며, 일부 신격들은 금속이나 나무, 빈랑나무 껍질로 만든 가면을 착용하기도 한다. 부타는 강렬하고 역동적인 춤과 음악, 기괴한 형상, 나아가 고대 인도의 기층적 무속문화를 가늠케 하는 제의적 분위기에 의해 특징화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갈루루띠, 깔꼭다, 뿌마니 깐니마니의 세 부타 신격이 등장한다.

한국의 샤먼유산: 진도 씻김굿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인 진도씻김굿은 망자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령제이다. 씻김굿의 순서는 부역을 관장하는 조왕신을 청해 집안의 부정을 물리고 재액초복을 기원하는 ‘조왕’, 집안의 최고신인 성주신을 청해 가내 평안과 부귀를 축원하는 ‘안당’, 죽은 조상을 맞아들이는 ‘초가망석’, 천연두를 옮기는 객귀인 माम신을 대접하는 ‘손님굿’, 가정과 자손의 번창과 복덕을 관장하는 제석신을 청해 놀리는 ‘제석굿’, 망자의 생시 원한을 상징하는 매듭을 풀어내는 ‘고풀이’, 망자의 순조로운 극락 천도를 위

해 혼령을 정화하는 '씻김', 한지로 만든 사람 형상으로 상징되는 혼령을 모셔 위무하는 '넋을 리기', 망자가 극락에 갈 때까지의 어려운 관문을 무사히 넘기고 가도록 축원하는 '희설', 망자의

극락왕생을 위해 저승길을 닦아주는 '길닦음', 굿판에 모여든 객귀들을 대접하여 배송하는 '중천'으로 구성된다. 흰 소복을 입은 무당이 망자의 한을 풀기 위해 연행하는 지진(紙錢)춤은 물론 육자배기 목(시나위목) 위주의 삼현육각 반주, 무당과 악사들의 애절한 무가는 고도의 심미적, 정서적 깊이를 지닌다. 망자는 물론 산 자의 안위를 축원하는 불교적 관념이 첨입된 무의인 씻김굿은 춤과 음악, 제차에 있어서 세습무권 특유의 높은 세련미와 예술성을 지닌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다.

